

사라진 사람들이 만나는 곳

글 재훈

인간 증발은 사회적/실존적으로 궁지에 몰려 절망과 수치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과 직업, 가족과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탐사 보고서다. '사라진 일본인들을 찾아서'라는 부제처럼 일본에서의 증발(앞 문장에서 언급한 실종 현상을 '증발'이라 일컫는다.) 현상에 주목하며, 자발적 실종을 택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일본 사회에 관한 배경지식을 밑바탕 삼아 풀어낸다.

저자인 레나 모제의 르포식 글과 증발자들의 고백이 담긴 에세이 그리고 사진작가 스테판 르멜의 사진이 합을 이뤄 현상의 거시적 맥락에서부터 당사자의 상념까지 어렵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다. 위 세 가지 파트 중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파트는 증발자들의 에세이이다. 글의 제목은 '아야에의 고백, 증발 21년', '하시의 고백, 증발 26년', '마키오의 고백, 증발 65년'과 같은 식으로 이뤄져 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 가명이다.) 증발의 원인은 대개 다음과 같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채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직장에서의 급작스런 해고, 자신의 명운이 걸린 시험으로부터의 낙방, 그리고 가정 폭력. 일본 사회가 이것들의 경험자를 좋은 삶으로부터 실패한 패배자로 발음하곤 하니, 그 패배를 내면화한 사람들이 내몰리는 선택지는 증발이란 (비)자발적 추방일 수밖에.

하시의 고백, 증발 26년. 하시는 긴 머리의 미녀인 아내와 함께 사는 엔지니어였다. 자신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와 한눈팔면 가족을 떠날 것만 같이 집 밖의 무언가를 그리워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고, 평일 저녁과 토요일을 사무실에서 과로하며 지내는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구식 건물을 폐기하고 투기용 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투자자들의 사자(使者)인 야쿠자가 찾아온다. 그들은 하시와 그의 아내를 찾아와 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니 집을 비우라고 협박한다. 겁에 질린 아내가 친정집으로 돌아가자, 홀로 침대에 누운 하시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더니 부엌으로 이동해 탁자 가운데에 마른 꽃다발을 놓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남긴다. '죄책감 때문에 떠나.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날 기다리지 마.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증발한다.

현재의 삶을 전생으로 치워둔 증발자의 발길은 진흙 속에 있지만 가볍고, 자유로워도 모델이다. 사회 복지 제도 바깥에서 사는 그들의 직업은 공사판의 일용직 노동자, 빈병과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 파는 넘마주이, 심야 이사(야반도주) 서비스 센터장 그리고 성노동자 등을 오간다. 증발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역시 좋지 않을 터. 이름과 현실을 상실한 부랑자들은 가족으로부터도 터부시되는 수치이며,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대화 주제다. 이같은 불행을 촛촛히 풀이한 레나 모제의 문장들을 충실히 따라간 독자에게 증발이란 곧 사회적 자살, 그리고 그 후의 (영원한) 좌절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입장은 르네의 것과 조금 다르다. 증발자들의 실제 현실이나 일본에서의 사회적 인식 그리고 저자들의 기자 윤리와는 별개로, 탐사 대상과 자신을 철저히 구분 짓는 저자들의 선 굵기는 재수 없게 느껴졌다. 레나 모제의 취재길을 동행하며 책에 수록된 사진을 찍은 스테판 르멜이 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특히 그러했다. 스테판은 본서의 프롤로그에서, 과거 자신이 경험한 도시에서의 커리어 라이프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고백하며, 본인의 증발 마려웠던 시기를 회상한다. 하지만 그의 좌절은 본문에 수록된 다른 증발자들의 에세이와는 달리, 다음 문장과 함께 한순간에 극복된다.

스테판: 물이 땅에 스며들듯이 내게도 사랑이 찾아와 다시 삶이 충만해졌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내가 있었던 길로 돌아왔다.

스테판은 위 문장을 통해 젊은 자신의 어려움을 과거 취급함으로써 현재의 자신과 분리하는데, 이 거리두기가 책의 본문에서 증발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에는 르네가 작성한 르포의 내용과, 에세이의 마감을 통해 빚어지는 비극성이 가담한다. 이를테면 르네가 증발자들과 그들을 찾는 가족에게 쥐여준, 다음과 같은 대사들.

아야에: 가족을 떠난 후 15년 만에 만난 아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 너무 늦어버렸다. 아들은 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키라: 행방불명된 아들의 집세는 지금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프면 치료비로 쓸 돈은 조금 저축해두어야 하니까요. (...)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시: 내가 사라지고 10년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아내는 나를 사망 신고했다고 한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 그 후로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잃어버린 행복은 절대로 되찾을 수 없다.

책을 펼칠 때면 누군가는 후회와 좌절,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란 밀실에 계속해서 가둬지고 있었다. 특정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그 공동체를 질식시키는 결벽증적 정상성이 사람들을 (사회적) 죽음의 문턱으로 떠미는 풍경이 내게 보였고, 짙은 안개 속으로 희미해져 가는 이들에게 나는 커다란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33년 차 증발자인 덴지가 언급했던, 증발자들 사이에서의 윤리를 떠올렸다.

덴지: 나는 인생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본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켜지는 합리적인 규칙이다.

생생하게 교차하는 타임라인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소설에 비해 증발자들이 기거하는 산야의 안개가 더 자유에 가까이 있었다.

그동안 <축제>가 여러 곳에서 소개될 때마다, 그것이 법의학 책에서 발견한 도판의 무연고 사망자들을 그린다는 사실은 빠지지 않고 설명돼왔다. 하지만 차연서는 그 시체들의 연고를 추적하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것들의 그림자 모양으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 일으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개별적인 죽음에 연고가 없을 리는 만무하니 '무연고 사망자'란 작가가 접근할 수 있거나,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의 선에서 마감한 소개말일 것이라 나는 짐작했고, 그에게 시체들의 실제 연고가 궁금하지는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차연서: 축제를 작업할 때 법의학 관련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범죄, 프로파일링 관련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강력 범죄들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럴 때면 이름 모르고 하루종일 놀이터에서 같이 논 친구의 본명을 갑자기 알게 되는 느낌?
서로 이름 모르고 만날 때 가장 좋은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사건 현장은 일종의 공공재로서 국가기관에 보관됩니다. 그렇다면, 법의학 책의 이미지들이 어떤 합의를 거쳐 책에 실리게 되었을까? 파헤쳐보기 정말 싫다는 느낌도 있고요.

나는 상대방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나의 두려움을 본다. 우리가 눈동자를 맞댈 때 서로의 사회적 배경은 벗겨지고 취약한 몸덩이와 잠자는 영혼이 선명해진다. 이러한 마주함이 수 시간 동안의 대화보다도 더 정확한 소통일 수 있듯이, 죽은 자들의 황야가 산 자들의 도시보다 평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떠돌던 공원과 차연서가 만드는 정원 그리고 증발자들의 산야가 만나는 주소지 역시 그곳에 있을 것만 같다.